

신어의 빈도와 사용 추이

남길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신어의 삶과 죽음

매년 출간된 신어 자료집의 빈도순 목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신어 조사》 자료집의 최고 빈도 신어는 ‘판문점 선언’, 2위는 ‘미투 운동’이다. 2015년 1·2위 신어는 각각 ‘셀카봉’, ‘땅콩 리턴’이었고, 2016년은 ‘흙수저’, ‘아재 개그’였다. 또 예년과 다르게 5월에 대신이 있었던 2017년은 ‘장미 대선’, ‘벚꽃 대선’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빈도 신어에 대한 일련의 목록은 해마다 수집되는 신어와 신어의 빈도가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의와 가치를 보여 준다.

신어 수집과 함께 제공되는 신어의 빈도는 이러한 정보 외에도 정착된 신어와 임시어로서 사라지는 신어, 신어의 정착 양상 등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10여 년 이상의 신어의 사용 빈도와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의 사용 추이, 즉 신어의 삶과 죽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더욱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그 많은 신어들의 생명 주기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 매년 등장하는 신어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한국어에 정착하고 몇 퍼센트는 사멸할까?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어떤 신어가 사전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신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빈도’는 신어 사용 추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인 단어와 달리 신어는 저빈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도를 신어의 안정화된 주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러 연구[Metcalf(2002), Banhart(2007), Cook(2010)]에도 불구하고, ‘빈도’와 시간 단위로 분석되는 빈도의 분포는 신어의 사용 주기를 살펴보는 데 가장 확실한 자원이 된다. 다시 말해, 신어의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이다. 옥스퍼드 아메리칸 디셔너리(Oxford American Dictionary)의 편집자이자 온라인 사용자 참여형 영어사전 워드닉(Wordnik)의 창립자인 매킨[Mckean(2014)]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단어가 사전에 남기를 바란다면 그 단어를 자주 쓰라고도 이야기한다.

웹의 언어 사용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현재에는, 웹에 등장한 대중 매체에서 그 어휘가 얼마나 사용되어 왔느냐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신어의 생존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익숙하거나 자주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빈도와 출현한 기사 건수 등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 2015년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은 ‘Manspreading(찍별남)’, ‘wine o’clock(와인을 마시기 좋은 시간)’, ‘butt dial(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둔 전화기의 버튼이 눌러 전화가 잘못 걸리는 일)’ 등을 새로이 등재했는데, 이들 역시 언중들에게 인정을 받아 충분한 빈도로 쓰인 예들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 역시 위 ‘판문점 선언, 셀카봉, 흡수저’ 등과 같은 많은 신어를 등재하고 있는데, 이들 신어 역시 직관적으로나 양적 기준에서 충분한 빈도를 보인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의 신어가 이러한 빈도의 기준을 충족할까? 더 나아가 모든 신어가 동일한 빈도로 쓰이거나 동일한 생명 주기를 가지는 것은 아닐진대, 오래 살아남는 신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언어 내적인 요인과 언어 외적인 여러 요인들 중에 무엇이 개별 신어의 사용 주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 이

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어의 사용 추이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어의 빈도와 분포를 통해 얼마만큼의 신어가 한국어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살아남는지,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한국어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대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의 기준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러한 사용 추이 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4장에서는 빈도 기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쟁점과 함께 신어 사용 추이 조사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기준과 쟁점

신어의 사용 추이는 주로 신어의 사전 등재 기준과 관련한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멧캐프[Metcalf(2002)], 반하트[Barnhart(2007)] 등에서는 정착된 신어로 판명된 신어는 사전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기준을 통해 신어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에서 신어의 생명 주기는 형태의 단순 빈도뿐만 아니라 해당 신어의 새로운 단어 생성의 가능성, 해당 신어가 뉴스 등의 제목으로 출현하는 빈도, 해당 신어의 출현 장르의 다양성 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세이[Hsieh(2015)]에서는 이러한 이전 연구를 ‘빈도 다양성(frequency diversity)’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다양한 사용자, 장르, 주제, 매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빈도의 분석이 신어의 생명 주기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빈도 다양성’의 개념은 멧캐프[Metcalf (2002, 152~164)]의 ‘사용

자 및 상황의 다양성(Diversity of users and situations)', 반하트[Barnhart (2007)]의 '장르(genres)나 자료(sources)의 수', '사용 시기의 범위(time span)' 등을 일부 계승하고 종합한 개념으로 분석된다.¹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의 신어 사용 추이 조사는 매년 10년 이전의 신어가 최근까지 약 10년간 사용되어 온 추이를 조사하며, 온라인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² 특정 신어가 10년 이상 대중 매체에서 사용되어 온 빈도의 추이와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의 정착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신어 사용 추이 조사는 현재까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어 총 5개년의 신어의 사용 추이가 분석되었다. 신어 사용 추이의 개요와 주요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개요

ㄱ. 조사 대상: 조사 시점의 10년 전 신어

ㄴ. 사용 추이 조사의 범위: 신어 출현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하되, 매년 시기를 확장함.

ㄷ. 조사 방법 및 절차

i. 총 신어 각각에 대한 검색 결과에 대한 웹 크롤링

: 일치 연산자(“”) 사용, 같은 웹 주소로 연결된 기사는 하나만을 수집

¹ 멧캐프[Metcalf(2002, 152~164; 2004)]에서는 신어 등재의 기준으로 '퍼지 규칙(FUDGE rule)'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빈도(Frequency), 야단스럽지 않음(Unobtrusiveness), 사용자 및 상황의 다양성(Diversity of users and situations), 생성 능력(Generation of meanings and forms), 의미 지속성(Endurance of concept)'의 5가지 기준을 의미한다. 반하트[Barnhart(2007)]의 'VFRGT' 기준은 다음과 같다.

V: the number of forms of W(다양한 표기 형태와 파생 형태의 수)

F: the frequency of w(빈도)

R: the number of sources in which w occurs(신문, 잡지, 뉴스 제목들의 수)

G: the number of genres in which w occurs(뉴스, 문학, 시, 수필, 블로그 등 장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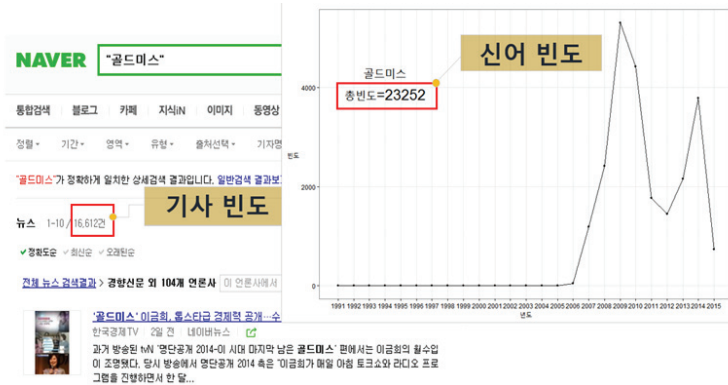
T: the time span over which w has been observed(해당 단어가 관찰된 시간 범위)

² 본 연구에서 소개된 신어 사용 추이 조사(2015년~2018년)는 '네이버'의 '연론사 뉴스'에서 검색 가능한 130여 개 내외의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신어>(국립국어원, 남길임 외)부터 <2018년 신어 조사>(국립국어원, 남길임 외)까지를 참고할 수 있다.

- ii. 동형어 및 부분 형태 일치어, 띄어쓰기 등에 대한 처리
- iii. 구간별 빈도 계산³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처음 조사된 신어는 2005년, 2006년 신어이고, 최초 출현 시기부터 2015년까지에 나타난 총빈도가 그 대상이 된다. 사용 추이 조사는 ‘빈도’의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생존 신어와 사멸 신어를 판별한다. 즉, 포털 검색에서 나타나는 기사 건수와 해당 대중 매체에 나타난 총빈도를 구분하고 계수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그림 1〉 참조), 연도별 빈도의 분포를 분석한다(〈그림 2〉).

그림 1 출현 빈도와 기사 빈도의 차이



3 (c)의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i) 각각의 신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웹 크롤링하되, 중복된 기사에 대해서는 하나만을 수집하였고, (ii) 검색 결과 동형어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주거나 수작업을 통해 정제하였다. 이 단계에서 용례가 너무 많아 동형어 변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자동 형태 계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된다. '롤링, 디비' 등 2음절 신어 등의 동형어가 그 예이다.(2005년, 2006년 신어 자료집에 의하면, '롤링'이나 '디비'는 각각 마용 커트의 새로운 기법과 '담배'를 나타내는 은어를 의미함.) 더불어 '다동이 가족'이나 '사건 집중 검토제'와 같은 구 단위 신어는 띄어쓰기가 수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규칙을 통해 계수하였다.

그림 2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분석

1	신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	골드미스	0	0	0	0	0	0	45	1188	2412	5303	4416	1770	1443	2158	3781	736	23252
3	프리허그	0	0	0	0	0	0	236	1043	407	322	681	670	1614	10064	6072	2140	23249
4	버블세븐	0	0	0	0	1	1	3726	3224	4349	3641	1575	589	1513	836	743	374	20572
5	편안아라톤	0	0	0	0	6	6	3816	5189	1028	940	357	785	842	187	124	117	12897
6	아이돌로미	0	0	0	0	0	0	167	556	830	1940	1153	819	665	1299	1206	297	9840
7	원장녀	0	0	0	0	0	0	1705	703	634	356	917	811	1241	1055	702	328	8452
8	병엄	0	0	0	0	0	0	1081	1190	959	625	745	764	533	609	868	761	8135
9	흔녀	0	0	0	0	0	0	14	76	86	65	217	611	939	2434	1953	869	7264
10	성동성	10	61	44	62	105	54	1400	984	1614	695	366	420	302	281	415	135	6948
11	쌍둥이	0	0	0	0	0	1	1909	1232	432	238	80	45	12	61	179	604	4783
12	순수정착물	0	0	0	0	0	0	216	1795	724	544	248	101	118	79	107	53	3985
13	완수남	0	0	0	0	0	0	57	1563	657	419	240	173	140	87	171	83	3590
14	꼭짓점단스	0	0	0	0	0	0	2222	68	58	51	34	12	45	412	150	57	3109
15	엘프녀	0	0	0	0	0	0	240	35	140	161	1196	112	58	86	284	16	2328
16	백스	0	0	0	0	0	0	86	104	130	172	339	218	458	316	226	116	2165
17	활판당지미	0	0	0	0	0	0	280	415	47	34	42	82	21	71	1129	40	2161
18	농민사관학교	0	0	0	0	0	0	41	64	135	174	315	221	387	221	305	159	2022
19	여로망	0	0	0	0	0	0	3	0	143	127	291	275	337	254	241	110	1781
20	주먹바우저제도	0	0	0	0	0	0	44	78	79	168	60	254	250	531	197	13	1674

〈그림 1〉의 경우, 2006년 신어 ‘골드미스’의 기사 건수와 전체 빈도의 차이를 보여 준다.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네이버’에 ‘골드미스’가 출현한 기사의 건수는 16,612회이지만, 같은 기간 같은 기사 전체에서 출현한 ‘골드미스’의 출현 빈도는 23,252회이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서 ‘골드미스’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와 ‘골드미스’로 띄어 쓴 경우까지를 포함한 횟수로, 대중매체 웹 말뭉치의 분석을 통한 별도의 과정을 통해 계수된다. 두 가지 유형의 빈도 모두 해당 신어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신어의 확산 정도는 그 신어가 각기 다른 대중매체에서 출현한 텍스트의 수를 통해서도 판단될 수 있지만, 전체 빈도를 통해 그 신어가 개념적, 기능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통해서도 판단될 수 있다. 한편 〈그림 2〉의 경우는 2006년 신어의 전체 빈도의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개별 신어의 종적 사용 양상을 보여 준다.

2015년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에서 처음 도입된, 신어 사용 추이의 양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즉, 지난 10년간 130여 개 웹 대중매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20회 이상 출현하고, 10건 이상의 기사에서 출현하며, 5개년 이상의 연도에 분포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생존 신어의 범주로 분류된다.

(2) 생존 신어의 기준

- ㄱ. 총 빈도: 20회 이상 출현
- ㄴ. 기사 건수: 10건 이상의 기사에 출현
- ㄷ. 연도별 분포: 5개년 이상에 분포

3. 신어는 얼마나 살아남는가: 2005~2009년 신어의 사용 추이

위 2장에서 논의된 생존 신어의 기준을 2005~2009년 신어 각각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신어의 출현 시점부터 10년간의 분석에서 생존 신어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27~33% 전후이다.

표 1 2005~2009년 생존 신어의 비율

	a. 전체 신어	b. 실제 분석 대상 ⁴	c. 생존 신어	생존 신어 비율 c/b(%)
2005	408	401	107	27
2006	530	514	143	29
2007	701	677	201	30
2008	475	458	134	29
2009	588	565	18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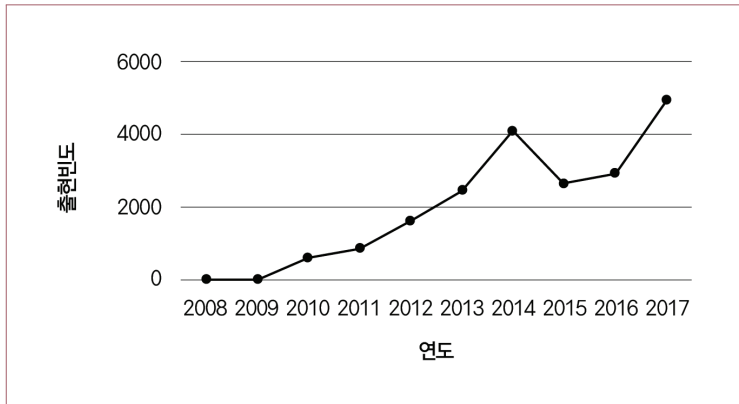
<표 1>에서 제시된 생존 신어의 비율은 동시에 사멸 신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매년 30% 전후의 생존 신어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의 신어, 대략 70% 전후의 신어는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언어권별로 신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멧캐프[Metcalf(2002)]는

⁴ 여기서 실제 분석 대상은 각주 3)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형태 중심 추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동형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한 대상을 가리킨다.

매일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어휘가 영어에서 만들어지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정착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⁵ 2005년, 2006년 신어를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사용 추이를 분석한 남길임(2015)에서도 최초 출현 연도에만 사용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신어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2008년, 2009년의 전체 신어 각각 475개와 588개 중 해당 연도에만 쓰이고 사라진 신어는 각각 154개(32%), 175개(30%)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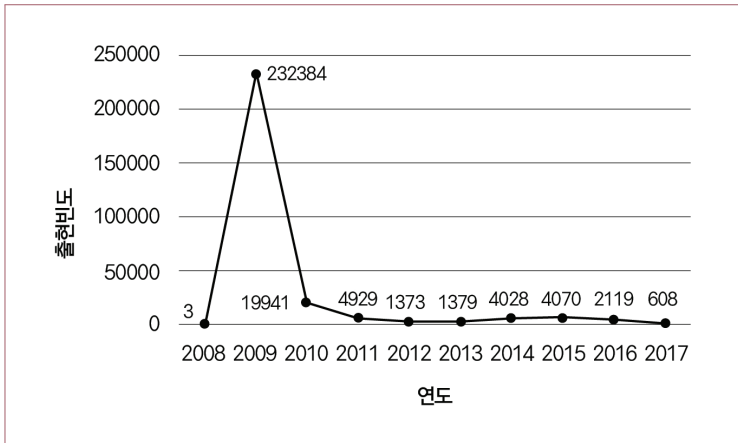
생존 신어는 그 추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상관없이 (2)의 조건을 만족한다. 아래 ‘연기돌’은 우상향 곡선으로 빈도가 증가한 사례를, ‘신종플루’는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에 최고 빈도를 기록하고 극적으로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3 ‘연기돌’의 빈도 추이



⁵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신어는 ‘대중 매체’에서 한 번 이상 쓰였다는 점에서 개인어나 임시어(nonce word)에서 어느 정도의 정착 단계를 거친 것으로 멧캐프(Metcalf(2002))의 연구 대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림 4 '신종플루'의 빈도 추이



신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원이나 조어론, 발음의 편이 등과 같은 언어 내적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관심사나 지시 대상의 지속성 등과 관련한 언어 외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모든 신어에 일관되게 적용할 만한 지배적 요인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신어를 통해 생존 신어의 면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아래는 2005~2009년의 생존 신어 중 지난 10년 간 총 사용 횟수 측면에서 최고 빈도를 기록한 신어 10위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3) 2005~2009년 신어 중 최근 10년 생존 신어(고빈도 10위까지, 괄호 안은 출현 빈도)

- ㄱ. 2005년 신어: 소비자피해주의보(2,815), 다등이가족(2,589),
 줌마렐라(2,285), 스쿨폴리스(2,261), 공시족(2,242),
 털기춤(1,624), 험한류(1,615), 세금폭탄론(801),
 월급고개(616), 안심택시(589)
- ㄴ. 2006년 신어: 훈남(37,426), 프리허그(31,330), 골드미스(23,519),

- 기프티콘(21,983), 버블세븐(14,168),
아이돌보미(9,607), 혼녀(8,590), 생동성(7,907),
쌍얼(7,318), 된장녀(7,119)
- ㄷ. 2007년 신어: 주택연금(30,317), 위키리크스(29,625),
엄친딸(20,490), 글램핑(19,164),
복합환승센터(16,182), 노인장기요양보험(15,407),
엄친아(14,056), 모바일투표(13,459),
브이라인(12,619), 노란우산공제(11,993)
- ㄹ. 2008년 신어: 토크콘서트(43,260), 녹색성장(30,971),
녹색산업(15,439), 프렌들리(14,136),
사이버모욕죄(6,814), 불빛축제(6,081),
전자중이(5,453), 학습지도요령해설서(4,957),
공정여행(4,778), 근황셀카(4,773)
- ㅁ. 2009년 신어: 신종플루(270,834), 인증샷(244,510),
조리법(32,767), 신종인플루엔자(32,580),
주요쟁점(25,113), 연기돌(20,281), 꿀벅지(15,850),
옛지있다(14,499), 품절남(13,399),
돼지인플루엔자(12,679)

지금부터 적어도 10년 전에 최초로 출현하여 한국어에 정착된 대표적 사례인 위 신어의 예들은 일반어가 상당수 보이지만 전문어도 있으며, 발생 요인 또한 새로운 제도나 사물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류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한국어에서 10년 이상 충분한 빈도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착된 신어라는 것이다. 이들 고빈도 신어는 지난 10년간 새로이 등장한 제도나 사물, 주요 사건이나 가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4.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쟁점과 지향 방향

장기간의 폭넓은 빈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된 신어 사용 추이는 정착된 신어를 선별하여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매년 수집된 신어의 사용 양상을 10년 이상 사용 추이를 조사하여 점검하고, 신어 정착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언어의 창조와 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석할 수 있으며, 언어 교육 및 언어 정책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어의 정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분석의 결과가 주관적인 직관과 늘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용 추이 조사의 방법론에는 몇 가지 쟁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분석 대상 측면에서 신어의 범주와 사용 추이의 분석 대상을 무엇으로 한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사용 추이 조사는 개인어를 배제하고 대중의 공인을 받은 신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 매체에 나타나는 신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 등 다른 웹 장르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블로그나 누리 소통망(SNS) 등 사적 자료를 포함할 경우 양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⁶ 대중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등 모든 주요 장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타당해 보이지만, 개인어를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다수에게 공인된 신어의 빈도를 찾는다는 점에서도 분석 대상을 '대중 매체'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당초 신어 조사가 대중 매체만을 대상으

⁶ 네이버 자료를 중심으로 대중 매체 출현 빈도와 블로그, 카페의 출현 빈도를 형태별로 비교하면 완전한 정비례식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상관성은 포착된다. 즉 대중 매체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어휘는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고빈도로 사용되는 듯하다. 다음 예는 [대중 매체/ 블로그/ 카페]의 순으로 각 신어의 빈도를 차례로 제시한 예이다.

판문점 선언 [118,114/ 55,617/10,667]

미투운동 [65,462/67,174/15,694]

흙수저 [34,776/65,765/32,635](이상 2019년 7월 10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하지만 ‘대중 매체’의 범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웹 등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의 성장과 확산을 고려하여 새로운 매체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형태 중심의 추이 조사는 모든 신어 유형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장에서 논의되었듯이 자동 빈도 분석이 어려운 동형 이의어나 다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의미적 신어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⁷ 이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신어 사용 추이 조사가 가능한 방법을 발견하기까지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과 이동 통신을 통한 의사소통이 급증함에 따라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변화 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다. 이와 함께 신어의 기능 역시 새로운 현상이나 ‘제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가리키는 좁은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듯하다. 2005년도 이후의 신어들을 추적해 보면, 오래 살아남은 신어의 부류에는 새로이 나타난 현상, 제도에 대한 명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어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최근 신어의 대표적 사례로, 새로운 범주화나 가치 부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엄친딸’은 단순히 ‘엄마 친구의 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엄마가 늘 나와 비교하는 대상을 새롭게 범주화한다. 일반적으로 ‘엄친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완벽한 조건을 가지며, 아들 버전인 ‘엄친아’ 역시 마찬가지다. ‘훈녀’나 ‘훈남’도 유사한데 예로부터 잘생긴 남녀는 늘 있어 왔지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훈훈할’ 정도라는 감성적인 기준을 더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

7 일반적으로 해마다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휘를 가리키는 ‘신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 더 정밀한 용어로 정의되고 새로이 범주화되기도 한다. 신어를 새롭게 부호화된(coined) ‘어휘적 신어’와 기존 어휘에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진 ‘의미적 신어’로 구분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피셔[Fischer(1998)]에서와 같이 임시적 형태의 지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언중들 다수에 의해 새롭다고 여겨지는 단어로 신어와 임시어를 구분하고 이를 인지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다. 이것 역시 외적 특성만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잘생긴 사람을 범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어가 가진 새로운 범주화의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신어 사용 추이 결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 정착 신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이들을 고려할 때, 신어의 정의와 주요 기능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어는 지칭할 표현이 마땅히 없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 언중이 가지는 언어의 창조성, 새로움의 추구, 웹과 이동 통신을 통한 언어유희의 향유 등을 보여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존재 이유를 가진다.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생존 신어를 판별하고 사전 표제어로 등재하는 데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어성(neologicity)과 사전 등재 가능성(dictionaryzability)은 서로 매우 긴밀하되 각각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최근 들어 신어와 신어 사용 추이, 사전 등재 등에 대한 연구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북미사전학회(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의 세계사전학회(Globalex) 공동 연수(워크숍)의 주제도 ‘사전학과 신어(Lexicography and Neologisms)’였고, 신어의 판별과 사용 추이, 사전 등재의 기준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다. 향후 한국어 신어 사용 추이 조사 결과가 우리의 ‘직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국어 화자가 느끼는 신어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더욱 완벽한 기준은 없는지, 동적 언어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전의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등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2005·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남길임·이수진·최준(2017), “대규모 웹크롤링 말뭉치를 활용한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72~106쪽.
- Barnhart, David K.(2007), “A Calculus for New Words”, 《Dictionaries: Journal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28, 132~138쪽.
- Cook, P.(2010), “Exploiting Linguistic Knowledge to Infer Properties of Neologisms”, PhD. thesis, University of Toronto.
- Fischer, R.(1998), 《Lexical Change in Present-day English: A Corpus-based Study of the Motiv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Productivity of Creative Neologism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Freixa, J. & Tomer, S.(2019), “Beyond Frequency: On the Dictionarization of New Words in Spanish”,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ism, the 22nd biennial meeting of the Dictionary Society of North America, at Bloomington, Indiana.
- Hsieh Shu-kai. (2015), The Secret of Long-Living Words: Predicting the Lexical Age of Neologism with Big Data, In *Proceedings of the 9th Asialex International Congress*, Hong Kong.
- McKean, E.(2014), Go ahead, make up new words!,
<https://www.youtube.com/watch?v=pMUv6UWkuWw>
- Metcalf, A.(2002), 《Predicting New Words: The Secrets of Their Success》, Boston: Houghton Mifflin.
- Nam et al.(2016), “The Life and Death of Neologisms: On What Basis Shall We Include Neologisms in the Dictionary?”, the 17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Proceedings.